

기혼여성이 느끼는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신뢰가 부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박 상 희

유 금 란[†]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기혼여성이 배우자에게 가지는 정서적 신뢰와 부부관계의 질적 만족 간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57명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신뢰, 기혼여성이 관계 내에서 경험하는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 부부관계의 질을 알아보는 부부 적응 척도를 측정하였으며 부부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함께 측정,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기혼여성이 배우자에게 갖는 정서적 신뢰,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 부부관계의 질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이 있었으며, 하위변인 간에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기혼여성이 갖는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은 자녀유무, 연령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취업유무로 본 결과 취업주부의 유능성 욕구 충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혼여성이 배우자에게 갖는 정서적 신뢰와 부부관계의 질 간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로 영향을 미쳤으며, 기본 심리적 욕구의 하위변인에서는 관계성 욕구 충족이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을 매개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의 질, 즉 관계만족과 적응을 위해서 기혼여성이 배우자에게 가지는 정서적 신뢰와 관계 내에서 경험하는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의 기본 심리적 욕구의 충족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미래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 정서적 신뢰, 부부관계의 질, 관계성

* 본 논문은 박상희의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유금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kyu@catholic.ac.kr

누구나 행복한 부부관계를 소망하나 결혼 후에 이러한 기대가 만족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가정의 형태도 다양해졌으며,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변화하여 가정을 위한 희생이나 유지를 우선으로 여기던 전통사회와는 다르게 개인의 만족스러운 삶에 더 의미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오고 있다(구성희, 2011). 즉, 과거에는 결혼생활의 안정성을 중요시 하였으나 최근의 추세는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김은정, 2007).

가족의 안정성에 있어 부부체계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부부체계의 안정성에는 부부 각자가 인지하는 결혼만족도가 큰 영향을 끼친다. 결혼은 다른 친밀한 관계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과정과 기대를 수반하며, 결혼만족도는 결혼의 질에 대한 개인이 지각하는 만족의 정도라 할 수 있다(정현숙, 2001). 선행 연구에서는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남성의 결혼만족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여성이 교육과 취업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의 역할 수행을 할 기회는 늘어났으나 가족 내에서의 역할 수행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분위기가 양성평등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내에서의 양성평등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도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조성희, 박소영, 2010).

또한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 등 가족 내 고유의 기능이 외부 전문적 기관에 의해 대행됨으로서 가족기능이 상당 부분 축소되는 반면 사회화 기능, 가족 간의 감정적 관계, 정서적 지원 등이 가족의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되었

다. 이렇게 현대 가족에서 기혼여성에게 요구하고 있는 정서적 역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여성들의 정서적 수준 내지 심리적 건강이 가족의 안정에 중요한 변수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심리적 건강과 관련하여 Deci와 Ryan(1985, 2000)은 자기결정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에서 인간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접하는 내적, 외적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며 자신에게 내재된 본성과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영양분이 필요하다. 자기결정이론에서는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촉진시키거나 저해시킬 수 있는 영양분인 사회적, 맥락적 조건에 대해 강조하며 삶의 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 시키는데 필수적인 영양소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를 기본 심리적 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라 하며, 이 기본 심리적 욕구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욕구로 이루어져 있다. 자율성(autonomy)은 스스로가 행동의 주체로서 자신의 가치나 관심에 따라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유능성(competence)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하는 것을 경험하며 사회적 환경에서 상호작용하는 데에 효능감을 느끼는 것이며 관계성(relatedness)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유대감을 가지며 연결되고 돌봄을 받는다는 느낌과 관련된다. 이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는 인간 성장 및 발달에 필수적 부분이며, 삶의 영역에서 세 가지 심리적 욕구 모두가 만족되어야 심리적 건강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자율성은 행동에 대한 자유의지 정도이며 최근 자율적인 동기도 심리적인 건강과 관련

이 있다고 나타났다(Deci & Ryan, 2008).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을 촉진시키는 대인관계 상황에서는 자율적인 동기를 증가시키게 되어 심리적 안녕감, 효과적인 과제수행에 도움을 주게 되는데, 이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대한 만족감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더 많이 보여진다. 관계 내 갈등에 있어서도 자율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은 애정관계에서 덜 방어적이고, 의견 불일치 상황에서 더 이해심을 가지며 결국 관계에 더욱 만족스러워하게 된다고 한다(Kneec, Lonsbary, Canevello & Patrick, 2005).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은 또한 성인 관계의 애착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이는데 이는 특정관계에서 상대방의 기본 심리적 욕구에 대한 적절한 지지가 그 관계의 질을 결정하며 궁극적으로 그 관계의 유지나 만족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Wei, Shaffer, Young & Zakalik, 2005). 이론에서는 나아가서 이런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일반적이거나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안녕감과 관계의 질적 수준에 관련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다(Deci & Ryan 2008; Deci et al. 2006; La Guardia et al. 2000). 친밀한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관계의 질과 행복과 정적상관이 있다는 경험적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우정의 질과 행복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Demir & Ozdemir, 2009).

발달과정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지속적으로 좌절될 경우 외적인 보상이나 외적 동기를 추구하게 되며, 이는 심리적 부적응이나 낮은 안녕감과 관련된다고 보았다(Deci & Ryan, 2000). 여러 선행연구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만족이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한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성의

욕구가 긍정적인 기분, 심리적 활동성과 정적상관이 있고, 부정적 감정 및 증상과는 부적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자율성과 유능성 뿐 아니라 관계성의 변화도 안녕감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eldon, Ryan & Reis, 1996; Reis, Sheldon, Gable, Roscoe & Ryan, 2000).

이렇듯 기본 심리적 욕구는 보편적이지만 욕구의 중요성은 문화, 환경, 관계 맥락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가정할 수 있는데(Deci & Ryan, 1985), 이를 부부관계 내에서 본다면, 기혼여성이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가지는 기본 심리적 욕구의 중요성과 그의 영향도 다른 관계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기혼여성에 있어서 삶의 만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중요한 부분이 부부관계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부부관계 내에서 심리적 욕구의 충족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 요소는 일차적으로 배우자일 것이다. 배우자 지지는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 배우자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결혼생활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의 지지는 부부간 친밀도를 높이고, 신뢰감을 회복하도록 하여, 긍정적인 정서적 교감을 제공함으로써 결혼생활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Cutrona, 1996; 임지영, 2011에서 재인용). 남편과 아내는 도움이 필요할 때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기대하며, 실제 경험적인 연구에서도 부부간 지지행동이 배우자의 적응과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시연, 서영석, 2010).

부부관계의 질적 인식에 대한 정서적 역할의 영향을 연구한 Erickson(1993)은 남편의 정서적 역할 수행이 부인의 결혼만족에 가장 강한 정적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홍

성례, 유영주, 2000). 또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정서적 지지를 추구하고 정서적 지지에서 좋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아 기혼여성에게 있어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는 삶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정서적 지지와 관련되어 정서적 신뢰(Emotional Reliance)는 Rya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2005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이홍균, 2009). 그들은 '정서적 신뢰'를 정서적으로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밀접한 타인에게 기꺼이 가려는 경향성이라고 정의하며 이는 대인관계에서 친밀한 대상에게 선택적으로 정서적인 신뢰함을 말하고 있다(Ryan, La Guardia, Butzel, Chirkov, & Kim, 2005). 정서적 신뢰는 정서적 지지의 방법이 아니라 정서적 지지가 유용한 상호작용 속에 기꺼이 함께 하는 것이며 특정 관계의 질적 기능으로서 관계에 따른 개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서적 지지를 구할지 여부는 정서적 지지를 받는 사람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기본 심리적 욕구를 촉진시키는 지 혹은 저해시킬 것인지에 달린 것으로 볼 수 있고(Deci & Ryan, 1985, 2000), 정서적으로 민감한 파트너들은 시기에 맞고 적절하게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자율성, 관계성, 유능성)를 제공하게 된다(La Guardia, Ryan, Couchman & Deci, 2000).

Ryan 등(2005)은 관계에 따른 정서적 신뢰에 있어서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의 영향이 유의미 하였고,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과 정서적 신뢰 모두 활기, 자존감, 삶의 만족과는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정서적 신뢰와 관련되어 La Guardia 등(2000)은 부모-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성인기 대인 관계에서도 사람들은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관계에 무의식적으로 끌리며, 욕구가 만족되는 만큼 안녕감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과 각기 다른 애착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애착 관계에서 다른 심리적 욕구 충족이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심리적 욕구 충족을 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더욱 안정된 애착을 갖는다고 하였다. 관계성, 자율성, 유능성의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은 개인적 안녕감 뿐 아니라 관계의 기능과 안녕감에도 영향을 주며, 이 과정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의 충족은 아버지, 연인, 친한 친구에 대한 정서적 신뢰와 안녕감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yan 등, 2005). 즉, 정서적 신뢰는 기본 심리적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욕구를 지지하는 파트너에 의해 촉진되며 개인적으로나 특정 관계(연인 등)내에서 이런 기본 심리적 욕구를 더 많이 충족시켜주도록 하여 개인적 안녕감과 관계의 기능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해보면, 정서적 신뢰는 기본 심리적 욕구의 충족과 정적 관련성이 있고 개인의 일반적인 안녕감 뿐 아니라 부모, 친한 친구, 연인 등의 특정 관계에서도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의 감정을 더 많이 유발시킴으로써 관계내의 만족감과 적응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기본 심리적 욕구도 심리적 안녕감이나 관계의 기능과 만족 등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각 파트너는 관계성 욕구 충족이 많이 될수록 더 큰 관계 만족을 경험하였고 이는 더 나은 관계의 기능과 안녕감을 경험하게 하였다(Patrick, Knee, Canevello & Lonsbary, 2007). 즉, 관계 내에서 특정 욕구를 지지받거나 저해 받은 경험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혼여성들의 경우 예전보다 자신의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졌으므로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의 경험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기혼여성이 배우자에게 가지는 정서적 신뢰는 기혼여성의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만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기혼여성의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부관계의 만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여성들에 있어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신뢰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을 촉진 시켜줄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기혼여성들이 부부관계 안에서 충족하게 되는 기본 심리적 욕구는 무엇이며, 이것이 부부관계의 질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부부관계의 만족과 적응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기혼여성들이 보다 행복한 자신의 삶과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로는 첫째, 기혼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신뢰,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부부관계의 만족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또한 취업유무가 결혼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일관적인 연구는 없으나 기혼여성의 삶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결혼기간별, 취업유무에 따른 정서적 신뢰,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 부부관계의 질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신뢰와 부부관계의 만족사이에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이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영향을 준다면 다른 관계와는 달리 부부관계에서는 기본 심리적 욕구의 하위요인 중 어느 요인이 영향을 줄 것인지 상관이 높은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편의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서울과 경기, 충청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50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62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성실 한 것을 제외한 총 257부의 자료가 결과분석에 들어갔다. 분석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정서적 신뢰

Ryan, La Guardia, Butzel, Chirkov와 Kim(2005)이 개발하고 김영미(2005)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정서적 신뢰 문항(Emotional reliance; ER)을 사용하여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가지는 정서적 신뢰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yan 등(2005)이 연구에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When I am alone or depressed, I would turn to ___.” 라는 문장을 “When I am alone or depressed, I would be willing to turn to ___.”로 바꾸어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혼자거나 우울하면, 나는 내 남편에게 의지하고 싶다“와 같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정서적 신뢰 척도는 모두 10개의 문항이며 1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사이의 Likert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Ryan 등(2005)의 기존 연구의 방법에 따라 각 문항을 합산해서 나온 값을 정서적 신뢰로 사용하였다. Ryan 등(2005)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89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n(%)
연령별 (n=257)	20대	4(1.6)
	30대	83(32.3)
	40대	116(45.1)
	50대	54(21.0)
결혼기간별 (n=255)	10년 이하	55(21.4)
	11년-20년	119(47.1)
	21년-30년	67(26.1)
	31년 이상	14(5.4)
교육수준 (n=257)	중졸	1(0.4)
	고졸	25(9.7)
	전문대졸	33(12.8)
	대졸	170(66.1)
자녀유무 (n=257)	자녀 있음	245(95.3)
	자녀 없음	12(4.7)
취업유무 (n=257)	전업주부	171(66.5)
	취업주부	86(33.5)
총소득 (n=257)	100-199만원	7(2.7)
	200-299만원	24(9.3)
	300-399만원	35(13.6)
	400-499만원	49(19.1)
	500-599만원	43(16.7)
	600만원 이상	99(38.4)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

한소영, 신희천(2006)이 개발한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를 “~한 적이 있다”로 바꾸어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 정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곽소영, 2007). 응답자들은 “전혀 없었다”에서 “매우 많았다”까지 7

점 Likert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관계성, 자율성, 유능성 각 하위 요인별로 7문항씩 21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욕구 충족의 정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척도가 .88,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각각 .79, .86, .86이었다(한소영, 신희천, 2006).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7이고,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은 각각 .78, .80, .85이다.

부부관계의 질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전반적인 결혼생활 적응수준 및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Spanier(1979)가 만든 Dyadic Adjustment Scale (DAS)의 우리말 번역판인 ‘부부 적응 척도’(이민식, 김중술, 1996)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모두 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항에 따라 0에서 1 혹은 6까지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다. 부부 적응을 측정하는 이 척도는 (1) 부부관계에서 주요 문제에 대한 의견 일치의 정도를 측정하는 의견 일치도(Dyadic Consensus) (2) 부부가 어떤 활동에 같이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응집력(Dyadic Cohesion) (3) 현재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정도를 측정하는 관계에 대한 만족(Dyadic Satisfaction) (4) 애정표현과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애정표현(Affectional Expression) 등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민식과 김중술의 한국판 부부관계 적응척도(DAS)의 표준화예비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3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고, 각 하위척도별로 보면 .90, .87, .81, .73이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8.0을 이용해 통계적 자료처리를 하였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알아보고, 정서적 신뢰,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 부부 적응 척도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 간 상관을 알아보았다. 셋째, 변인들 간 평균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중심으로 t-test와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신뢰와 부부관계의 질 간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알아보았다. 표집수가 작아 구조방정식이 아닌 매개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sobel test로는 매개분석 후 유의한 매개효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였다(이상균, 2007).

결 과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본 심리적 욕구에는 관계성, 자율성, 유능성의 3가지 하위요인들과 부부 적응 척도에는 일치도, 응집도, 만족도, 애정표현의 4가지 하위요인들을 사용하였다.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정서적 신뢰, 기본심리적 욕구 충족, 부부 적응 척도의 모든 변인에서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상관이 높은 것은 관계성과 만족도($r = .71$)이며 유능성과 정서적 신뢰($r = .14$)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 간의 차이 검증

결혼기간에 따른 변인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표 2. 주요 하위변인 간의 상관관계(pearson 상관계수)

	정서적 신뢰	관계성	자율성	유능성	일치도	응집도	만족도	애정 표현
정서적신뢰	1							
관계성	.43**	1						
자율성	.20**	.46**	1					
유능성	.14*	.37**	.34**	1				
일치도	.33**	.57**	.34**	.14*	1			
응집도	.39**	.51**	.26**	.17**	.62**	1		
만족도	.42**	.71**	.45**	.29**	.67**	.51**	1	
애정표현	.35**	.48**	.23**	.17**	.66**	.50**	.57**	1

* $p < .05$, ** $p < .01$

표 3. 결혼기간별 변인 간 차이검증

종속변수	결혼기간 M(SD)			F	Scheffe
	① 10년 이하	② 11년-20년	③ 21년 이상		
정서적 신뢰	3.84(.76)	3.50(.94)	3.69(.95)	2.88	
기본심리적 욕구 충족	5.12(.64)	4.96(.74)	4.87(.72)	2.05	
부부관계만족	3.18(.55)	3.09(.67)	3.06(.54)	.74	
관계성	5.25(.80)	5.06(1.09)	5.12(.86)	.72	
자율성	5.19(.91)	5.04(.94)	4.95(1.00)	.99	
유능성	4.96(.83)	4.78(.89)	4.52(.84)	4.52*	① >③

* $p < .05$, ** $p < .01$

표 3과 같다. 결혼기간에 따른 정서적 신뢰,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 부부 적응 척도 간의 평균 차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의 하위요인별로는 결혼기간에 따른 관계성, 자율성 욕구 충족의 평균 차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유능성 욕구 충족에 대한 결혼기간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와서 Scheffe 검증에서 결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 21년 이상보다 더 유능성 욕구 충족이 큰 것으로 나왔다.

취업유무에 따라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로 나누어 t-test를 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간 차이검증에서는 정서적 신뢰,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 부부 적응 척도 간의 평균 차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의 하위변인을 살펴본 결과 관계성, 자율성 욕구 충족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능성 욕구 충족에 대해서는 취업유무에 따라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42, p < .05$). 구체적으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각 유능성 욕구 충족의 평균값이 4.64와 4.92로 취업주부가 통계적

표 4. 취업유무별 변인 간 차이검증

종속변수	전업주부 M(SD)	취업주부 M(SD)	t
1	3.61(.95)	3.66(.85)	-.38
2	4.96(.72)	4.97(.73)	-.13
3	3.10(.57)	3.09(.67)	.03
4	5.12(.96)	5.09(1.00)	.21
5	5.11(.96)	4.90(.92)	1.69
6	4.64(.86)	4.92(.87)	-2.42*

* $p < .05$, ** $p < .01$

- 주 1. 정서적 신뢰
 2.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
 3. 부부 적응 척도
 4. 관계성 5. 자율성 6. 유능성

유의수준 하에서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신뢰, 부부관계의 질과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과 관계성 욕구 충족의 매개 효과 검증

정서적 신뢰를 예측변인으로,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을 매개변인으로, 부부관계의 질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5와 같다. 1단계에서 기혼여성이 배우자에게 갖는 정서적 신뢰($\beta = .437, p < .01$)가 부부관계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정서적 신뢰($\beta = .339, p < .01$)는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1단계, 2단계가 모두 충족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3단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부관계의 질에 대한 정서적 신뢰의 효과가 유의미했으나($\beta = .437, p < .01$) 매개변인인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을 통제했을 경우 정서적 신뢰의 효과가 감소하였다($\beta = .272, p < .01$). 즉, 정서적 신뢰가 부부관계의 질에 대해 설명해주는 R^2 변화량이 19.1%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을 매개변수로 넣었을 때 40.2%로 21.1%를 더 설명해주었다. 따라서 기혼여성이 배우자에게 갖는 정서적 신뢰와 부부관계의 질 간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이 부분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의 하위요인 중 가장 상관이 높았던 관계성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도 표 5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기혼여성이 배우자에게 갖는 정서적 신뢰($\beta = .437, p < .01$)는 부부관계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정서적 신뢰($\beta = .434, p < .01$)가 관계성 욕구 충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부부관계의 질에 대한 정서적 신뢰의 효과는 매개변인인 관계성 욕구 충족을 통제했을 경우 효과가 감소하였고($\beta = .170, p < .01$), 관계성 욕구 충족을 매개변인으로 하였을 때 부부관계의 질을 설명해주는 R^2 변화량이 30.8%를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성 욕구 충족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정서적 신뢰가 부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40.2%)보다 관계성 욕구 충족(49.9%)이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하위변인인 자율성욕구 충족과 유능성 욕구 충족을 매개변인으로 하였을 때는 정서적 신뢰가 부부관계의 질을 설명해주는 것보다 설명량이 적어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5. 정서적 신뢰가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 관계성 욕구 충족을 매개로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β	t	R^2	F
1	정서적 신뢰	부부관계의 질	.288	.437	7.76***	.191	60.16***
2	정서적 신뢰	기본 심리적 욕구충족	.266	.339	5.75***	.115	33.10***
		관계성 욕구 충족	.460	.434	7.69***	.188	59.14***
3	정서적 신뢰	부부관계의 질	.179	.272	5.27***	.191	60.16***
	기본 심리적 욕구충족		.410	.488	9.46***	.402	85.21***
	정서적 신뢰	부부관계의 질	.112	.170	3.44***	.191	60.16***
관계성 욕구충족	.383		.616	12.50***	.499	126.4***	

* $p < .05$, ** $p < .01$, *** $p < .001$

취업주부의 유능성 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간의 유능성 욕구 충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으로서 취업주부에 있어서 유능성 욕구 충족이 정서적 신뢰와 부부관계의 질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고 결과는 표 6과 같다. 1단계에서 취업주부가 배우자에게 갖는 정서적 신뢰($\beta=.304, p<.01$)가 부부관계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취업주부가 배우자에게 갖는 정서적 신뢰($\beta=.294, p<.01$)가 유능성 욕구 충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부부관계의 질에 대해 취업주부가 배우자에게 가지는 정서적 신뢰의 효과가 매개변인인 유능성 욕구 충족을 통제했을 경우 감소하므로($\beta=.240, p<.01$), 취업주부의 경우 유능성 욕구 충족을 매개변인으로 하였을 때 부부관계의 질을 8%(R^2 변화량) 더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다. 즉, 취업주부의 유능성 욕구 충족은 정서적 신뢰와 부부관계의 질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 유능성 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여부를 검증한 결과 설명량인 R^2 변화량이 1%($p = .088$)로 매개변인으로써 적합하지 않았다.

각 매개변인인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 관계성 욕구 충족, 유능성 욕구 충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절차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95%신뢰구간에서 모두 0이 포함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므로서 기혼여성이 배우자에게 갖는 정서적 신뢰와 부부관계의 질 간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 관계성 욕구 충족이, 취업주부에 있어서는 유능성 욕구 충족이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기혼여성이 배우자에게 갖는 정서적 신뢰가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기혼여성이 부부관계 속에서 가지는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하여 결혼생활에서 기혼여성이 갖게 되는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자기결정이론에서는 기본 심리적 욕구는 보편적이지만, 욕구의 중요성이나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표 6. 정서적 신뢰가 유능성 욕구 충족을 매개로 부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취업주부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β	t	R^2	F
1	정서적 신뢰	부부관계의 질	.241	.304	2.93**	.092	8.56**
2	정서적 신뢰	유능성 욕구 충족	.251	.294	2.82**	.086	7.95**
3	정서적 신뢰	부부관계의 질	.190	.240	2.35*	.092	8.56**
	유능성 욕구 충족		.223	.290	2.83**	.172	8.64***

* $p<.05$, ** $p<.01$, *** $p<.001$

특히, 정서적으로 민감한 파트너들은 시기에 맞고 적절하게 이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를 제공한다고 하였으므로(Ryan 등, 2005)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부부관계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기존의 선행연구와 비교해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신뢰,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 간에는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관계 내에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욕구 충족을 경험할수록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그 대상에게 기꺼이 의지하고 싶다는 선행연구(Ryan 등, 2005)와 일치한다. 정서적 신뢰와 부부관계의 질 간에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La Guardia 등(2000)의 연구에서 주장한 것처럼 사람들은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관계에 무의식적으로 끌리며, 욕구가 만족되는 만큼 안녕감을 경험할 것이라고 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또한 기혼여성이 가지는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이 부부관계의 질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일반적이거나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안녕감과 관계의 질적 수준에 관련한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선행연구들(Deci & Ryan, 2008; Deci 등, 2006; La Guardia 등, 2000)과 일치하는 결과다. 나아가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관계의 질과 행복과 정적상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혼여성이 배우자에게 정서적으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가지게 되는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의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이 촉진되며 이렇게 심리적 욕구가 충족될수록 부부관계에서 만족하고 더욱 적응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기혼여성이 배우자에게 갖는 정서적 신뢰,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 부부관계의 질이 결혼기간과 취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결혼기간이 길수록 정서적 신뢰,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 부부관계의 질적 만족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왔으나 사후검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결혼기간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연구결과들이 일치하진 않지만 최근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만족도가 점차 낮아진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Orathinkal & Vansteenwegen, 2007).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간에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 충족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로는 유능성 욕구 충족이 취업주부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취업여부가 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성역할 태도와 일치하거나 취업유무 그 자체보다는 남편의 지지여부가 관계를 중재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조금숙, 조증열, 2004). 이처럼 부부관계의 만족과 적응에 취업여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각기 자신이 가진 역할에 만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취업주부는 사회와 가정에서 다중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배우자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수적이라 여겨지며 이런 배우자의 지지가 수반된다면 유능성 욕구 충족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혼여성이 배우자에게 가지는 정서적 신뢰와 부부관계의 질 간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이 매개역할을 하는 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선행연구(Ryan 등, 2005; Patrick 등, 2007)와 같이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이 매개역할을 하였다. 또한

기본 심리적 욕구의 하위변인을 중심으로 검증해본 결과 관계성 욕구 충족에 의한 매개효과가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에 의한 것보다 더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체적으로는 유능성 욕구 충족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취업주부의 경우 유능성 욕구 충족이 정서적 신뢰와 부부관계의 질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업주부의 경우는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것처럼, 애정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갖는 정서적 신뢰와 관계 내에서의 안녕감과외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이 매개하며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이 관계의 질과 기능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도 같이 한다(Ryan 등, 2005). 그러므로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에 대한 적절한 지지가 부부관계의 질을 결정하며 그 관계의 유지나 만족감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자기결정이론에서는 기본 심리적 욕구가 개인적 발달 경험에 의해 특정 욕구를 지지받거나 방해받아 욕구 만족을 충족하려는 지향성 및 잠재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나, 실제 연구에서는 기본 심리적 욕구의 문화 보편성을 강조하여 욕구 강도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관계 맥락과 문화에 따른 욕구 강도의 차이가 나타났고 관계기능이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heldon, Elliot, Kim과 Kasser(2001)의 연구에서는 중요한 인간 욕구로 주장하는 10가지 욕구의 만족경험과 각 욕구의 중요성을 알아보았는데, 한국인은 관계성 욕구의 중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 한국의 경우 집단주의 문화로 자율성 보다는 관계성이 가족이라는 구성을 함께하고

있는 부부관계에서 더욱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성인애착과 기본 심리적 욕구 및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관계 대상에 따라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애착 안정 또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a Guardia 등, 2000). 즉, 앞서서의 가정대로 기본 심리적 욕구는 보편적이지만, 욕구의 중요성과 충족정도는 문화적, 관계적 맥락 안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다른 관계와는 달리 결혼을 통해 맺어진 부부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의 역할과 중요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Patrick 등(2007)의 연구에서는 또한 기본 심리적 욕구 중 관계성 욕구가 관계 내에서 기능하고 안녕감을 느끼는데 가장 강하고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부부관계 내에서 관계성 욕구 충족을 많이 경험할수록 더 큰 만족을 가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이성 관계 만족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욕구 충족에 관한 연구(곽소영, 손은정, 2008)에서 관계성에 대한 충족경험이 관계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커플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연구(한소영, 신희천, 2007)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 욕구 중요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미혼 커플 관계에서는 관계성 욕구 중요성이 높았으며 기혼의 관계에서는 자율성 욕구의 중요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 미혼의 경우 사귀는 단계에서 친밀감과 긍정적 관계가 중요시 될 것이며 결혼이 지속되면 관계지향적보다 기존의 다른 욕구가 중요할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 중 기혼여성들은 관계성 욕구 충족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부부

관계의 만족도와 가장 상관성이 높게 나왔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어느 욕구를 중요시 여기는가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실제 관계 내에서 충족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본 것이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다른 이유로는 성취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자율성과 유능성에 대한 욕구 충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반해, 부부관계 같이 실제 관계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관계성에 대한 욕구 충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유능성 욕구 충족이 더 높았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서적 신뢰는 관계유형, 문화, 성별에 의해 차이가 나며 남성보다 여성의 정서적 의존도가 높다고 하였다(Ryan 등, 2005). 또한 성공적인 결혼관계에 대해 여자들은 정서적 안정성(애정, 신뢰, 관심)이라고 말하는 반면, 남성들은 충실함(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 여성들은 좀 더 관계 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현경자, 2005). 즉, 기혼여성들이 남편보다 더 정서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영향이 관계 내에 반영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에게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신뢰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그 관계 내에서 기혼여성들의 기본 심리적 욕구의 충족 역시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관계성 욕구의 충족이 무엇보다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부부문제 등의 상담에서 기혼 여성들에게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배우자와의 정서적 소통이 부부관계의 개선뿐 아니라 기혼여성 자신의 삶의 만족에도 중요할 것이라 미루어 볼 수 있다. 부부관계에

서 서로의 심리적 욕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관계 내에서 심리적 욕구의 충족을 지지받고 경험할 수 있다면 부부간 관계개선에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부부 상담에서는 무엇보다 관계의 만족을 위해서 서로 배려 받는다는 느낌, 즉 관계성의 향상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편의표집으로 모집되어 대부분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20대에서 50대의 기혼여성으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임의표집이라 표집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힘들며,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중산층이상으로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배제되기 힘들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교육, 연령 등)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많으나 소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가 많다(조성희, 박소영, 2010). 본 연구에서는 가계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참가자가 50%를 차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적은 참가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 학력, 경제수준을 가진 표본으로 연구를 확대하여 반복시행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부부관계의 질에 대한 부부 적응 척도는 결혼생활 중의 만족과 적응에 중점을 둔 척도이므로 부부관계 내의 다양한 이면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이 연구는 설문지를 통

한 자기보고식 측정방식이므로 관계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위해서는 면접이나 사례 연구 등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기본 심리적 욕구의 충족과 정서적 신뢰, 부부관계의 질 등은 광범위한 개념이고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것이므로 당시의 상황과 개인내적인 변인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기혼여성의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과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외부 변인들(자녀와의 관계 등), 기본심리적 욕구 충족이 정서적 신뢰와 부부관계의 질에 함께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와 다른 개인내적 변인(예: 성역할태도 등)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소영 (2006). 이성 관계에서의 심리적 욕구충족에 따른 관계만족도: 자율성정도와 갈등해결 전략의 매개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소영, 손은정 (2008). 이성 관계에서 심리적 욕구충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동기와 갈등해결전략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2), 177-195.
- 구성희 (2011). 초기 부적응도식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령 (2009). 연령대에 따른 여성의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26, 35-62.
- 김은정 (2007). 정서조절, 의사소통 그리고 결혼만족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시연, 서영석 (2008). 부적응 도식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부부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243-1265.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송지준 (2012). SPSS/AMOS 통계분석방법. 서울: 21세기사.
- 이민식, 김중술. (1996). 부부 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의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5(1), 129-140.
- 이상균 (2007). 사회복지연구에서의 매개효과 검증: 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리뷰, 12, 19-36
- 이흥균 (2009). 청소년의 정서적 신뢰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기본 심리적 욕구를 매개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지영 (2011). 기혼 여성의 부부간 공평성 인지 및 남편의 정서적 지지와 결혼 만족도.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춘미 (2009).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부부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153-171.
- 조금숙, 조중열 (2004).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3), 27-41.
- 조성희, 박소영 (2010).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9(4), 149-174.
- 조혜선 (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 경제적 자원, 성역할관, 관계성 모델의 비교. 한국

- 사회학, 37(1), 91-115.
- 조 현, 최승미, 오현주, 권정혜 (2011). 한국판 부부적응척도 단축형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55-670.
- 정현숙 (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9(11), 89-106.
- 최현철 (2007). *사회통계방법론*. 서울: 나남.
- 한소영, 신희천 (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439-464.
- 한소영, 신희천 (2006).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17-835.
- 한소영, 신희천 (2007).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다집단 요인분석과 잠재평균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47-465.
- 현경자, 김연수 (2002). 기혼 남녀의 결혼 만족 이유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9(5), 225-263.
- 홍성례, 유영주 (2000). 부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61-76.
- Carstensen, L. L., Isaacowitz, D. M., & Charles, S. T. (1999). Taking time seriously: A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4(3), 165-181.
- Deci, E. L., La Guardia, J. G., Moller, A. C., Scheiner, M. J., & Ryan, R. M. (2006). On the benefits of giving as well as receiving autonomy support: Mutuality in close friend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3), 313-327.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eci, E. L., & Ryan, R. M. (2008). Facilitating optimal motiv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ross life's domains. *Canadian Psychology*, 49(1), 14-34.
- Demir, M., & Ozdemir, M. (2009). Friendship, need satisfaction and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 243-259.
- Hahn, J., & Oishi, S. (2006). Psychological needs and emotional well-being in older and young Koreans and America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689-698.
- Knee, C. R., Lonsbary, C., Canevello, A., & Patrick, H. (2005). Self-determination and conflict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997-1009.
- Knee, C. R., Patrick, H., Vietor, N. A., Nanayakkara, A., & Neighbors, C. (2002). Self-determination as growth motiva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5), 609-619.
- La Guardia, J. G., Ryan, R. M., Couchman, C., & Deci, E. L. (2000). Within-person variation in security of attachment: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attachment, need fulfill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3), 367-384.

- Leak, G. K. & Cooney, R. R. (2001). Self-determination, attachment style, and well-being in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Representative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25, 55-62.
- Orathinkal, J., & Vansteenwegen, A. (2007). Do demographics affect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33(1), 73-85.
- Patrick, H., Knee, C. R., Canevello, A. & Lonsbary, C. (2007). The role of need fulfillment in relationship functioning and well-being: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3), 434-457.
- Reis, H. T., Sheldon, K. M., Gable, S. L., Roscoe, J., & Ryan, R. M. (2000). Daily well-being: The role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4), 419-435.
- Rook, K. S. (1987). Social support versus companionship: Effect on life stress, loneliness, and evaluations by oth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6), 1132-1147.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Ryan, R. M., La Guardia, J. G., Solky-Butzel, J., Chirkov, V., & Kim, Y. (2005). On the interpersonal regulation of emotions: Emotional reliance across gender, relationships, and cultures. *Personal Relationships*, 12, 145-63.
- Sheldon, K. M., Elliot, A. J., Kim, Y., & Kasser, T. (2001). What's satisfying about satisfying events? Testing ten candidate psychological nee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2), 325-339.
- Sheldon, K. M., Ryan, R. M., & Reis, H. T. (1996). What makes for a good day? Competence and autonomy in the day and in the pers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12), 1270-1279.
- Wei, M., Shaffer, P. A., Young, S. K.,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shame, depression, and loneliness: The mediation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591-601.

1차원고접수 : 2013. 7. 17.

심사통과접수 : 2013. 9. 10.

최종원고접수 : 2013. 9. 22.

The mediating effect of the fulfillmen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reliance and quality of marital relationship

Sanghee Park

Kumlan Yu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the fulfillmen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reliance on their spouses and the quality of marital relationships. A total of 257 married women completed a questionnaire packet including demographic information, emotional reliance,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nd quality of marital relationship. The results indicated that all the variabl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e fulfillmen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emographic variables (i.e. age and with or without children). However, employed women were highly satisfied with competence which is one of sub-constru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Lastly, the results revealed that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reliance and the quality of marital relationship for married women.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emotional reliance,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the quality of marital relationship, 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